장학금 받을까 유학 갈까

	기관명	원서마감일
기본교육기관	해인사승가대학	3월23일
	송광사승가대학	3월23일
	수덕사승가대학	3월 31일
	범어사승가대학	4월2일
	불국사승가대학	3월 31일
	쌍계사승가대학	3월25일
	화엄사승가대학	3월27일
	동화사승가대학	3월 31일
	통도사승가대학	3월25일
	법주사승가대학	3월27일
	봉녕사승가대학	1월 28일
	동학사승가대학	1월 28일
	운문사승가대학	1월 28일
	청암사승가대학	1월 28일
	기본선원	3월5일
	중앙승가대학교	2월23일
전문교육기관	통도사 영축율학승가대학원	2월22일
	송광사 율학승가대학원	2월 19일
	동화사 율학승가대학원	3월 18일
	쌍계 율학승가대학원	2월23일
	범어사 율학승가대학원	2월22일
	해인총림율학승가대학원	2월22일
	백양사 율학승가대학원	3월 15일
	봉녕사 율학승가대학원	1월 28일
	청암사 율학승가대학원	1월 28일
	법주사 선학승가대학원	4월중
	유마사 선학승가대학원	3월30일
	선운사 초기불교 불학승가대학원	3월 14일
	봉선사 능엄승가대학원(청강생)	1월 31일
	동화사 한문불전승가대학원(청강생)	3월 15일
	운문사 한문불전승가대학원	1월 28일
	직지사 불전한문승가대학원	3월3일
	삼선불학승가대학원	3월8일
	동학사 화엄승가대학원	1월 28일
	백양사 중관유식승가대학원	3월 15일
	고운사 화엄승가대학원	3월 31일
	서울불학승가대학원	2월 19일
특수교육기관	어산작업학교	2월25일
	한국불교전통의례전승원	3월7일
	경주 동대 국제불교문화사업학과	1월 29일

승가 기본 · 전문교육기관
일제히 학인 모집 '공고'

학인 대상 다양한 혜택 눈길
장학금, 연구비 지원 비롯해
해외 대학 대학원 진학 특전

전국 사찰승가대학과 승가대학원이 새 학기를 앞두고 일제히 학인 모집에 들어갔다.

각 교육기관들은 장학금 등 각종 혜택을 내세우며 신입 학인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는 28일 입학원서 접수를 일제히 마감하는 사미니 승가대학은 학인 스님들에게 다양한 특전을 약속했다. 운문사는 해외교류를 맺고 있는 일본 하나조노 대학·대학원, 베이징 칭화대 인문계열 학과, 태국 국립 마하출라롱콘대학 입학 특전 외에 2학년 수료 후 대만불교 연수, 4학년 학기 중 마하보디교육원 호스피스 교육 등을 진행한다. 청암사는 장학금과 아이패드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태극권 지도자 및 심판 자격 취득, 구미대 아동보육전공과 연계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봉녕사승가대학은 묘엄불교문화재단의 장학금 혜택 외에도 4년간 사찰음식 강의 및 실습을 이수한 스님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고, 초의다맥전수, 불교다례지도자 자격증도 준다. 동학사승가대학은 신입 학인 스님들에게 입학금을 면제하고 전 학년에 교재를 제공해주고 있다.

사미 승가대학은 3월 중순 이후 학인 모집원서 접수와 면접이 진행된다. 중앙승가대학교는 2월18일부터 23일까지 신입생, 편입생을 추가 모집한다.

전문교육기관인 운문사 한문불전대학원·보현율원 역시 승가대학과 마찬가지로 해외대학 및 대학원 입학특전 외에 매월 연구비 및 교육원 연수교육비가 지원되며 해외연수, 각종 장학 혜택이 제공된다. 청암사 율학승가대학원과 동학사화엄승가대학원, 봉녕사 금강율학승가대학원도 장학금과 연구비를 지원해준다.

해인총림 율학승가대학원은 2월22일까지 전문과정과 연구과정 학인 스님을 모집한다. 송광사율학승가대학원은 2월19일까지 서류접수를 마감하며, 범어사율학승가대학원은 2월22일까지 원서접수를 마감한다. 동화사 율학승가대학원도 3월18일까지 전문과정, 연구과정 신입학인을 모집하며, 사중거주 학인 스님에 한해 등록금이 면제된다.

직지사불전한문승가대학원도 본방생과 청강생을 모집한다. 비구, 비구니 스님 모두 지원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은 3월3일까지다. 삼선불학승가대학원은 2년 4학기 전문과정에서 수학할 비구니 학인 스님을 모집 중이다. 서울불학승가대학원은 2월19일까지 청강생을 모집한다. 청강생은 1학기 법화경, 2학기 화엄경 과정 등 학기별로 선택도 가능하다.

선운사 초기불교불학승가대학원도 2년 전문과정과 3년 연구과정 신입 학인을 모집한다. 원서접수마감은 3월14일까지며, 대학원 입학 후 중앙승가대 대학원과정을 지원할 경우 선운사에서 2년 과정을 이수하면 석사학위 취득이 가능하다. 백양사 중관유식승가대학원과 율학승가대학원은 광주 남부대 사회복지학과와 연계해 입학·장학 지원 혜택을 준다.

종단 특수교육기관도 학인모집 중이다. 불교의식전문기관인 조계종 어산작법학교는 2월25일까지 모집한다. 서울 구룡사서 수업을 진행하는 한국불교전통의례전승원도 2년간의 사용의례과정, 전문과정과 3년 기간의 연구과정 학인을 모집한다. 영어교육 전문과정인 동국대 경주캠퍼스 국제불교문화사업학과도 오는 29일까지 원서접수를 마감한다. 신입 학인 스님에게는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이 종단장학으로 지원되며, 3학기에 3주간 해외연수특전도 주어진다.

어현경 기자 eonaldo@ibulgyo.com

송광사 주지 진화스님 임명

관음사 주지 직무대행 허운스님

조계총림 송광사 주지에 전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진화스님〈사진〉이 임명됐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진화스님에게 송광사 주지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와 함께 주지 임기 만료로 주지 공석 상태인 제23교구본사 관음사 주지 직무대행에는 전 신도시포교종책특보 허운스님을 임명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진화스님에게 "어느 스님보다도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을 모범적으로 이끌어 왔기 때문에 본사 주지 소임도 잘 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허운스님에게도 "빠른 시일 내 선거일을 잡고 감사도 잘 마무리 지어 본사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진화스님은 보성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2년 부산 범어사에서 자운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1985년 자운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진화스님은 송광사 선원 등에서 정진했으며, 서울 봉은사 주지, 광주 증심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허운스님은 현문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8년 범어사에서 사미계, 1995년에 구족계를 각각 수지했으며 고양 정혜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2월25일 종회의원 재·보궐선거

직선 2석 직능 2석 비구니 1석

공석 중인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을 선출하는 재선거와 보궐선거가 오는 2월25일 실시된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종훈스님)는 지난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분과회의실에서 열린 제310차 회의에서 재선거 및 보궐선거 일정을 확정, 23일자로 공고했다.

이번 선거는 직선직 2석과 직능대표 2석의 보궐선거, 비구니대표 1석의 재선거로 총 5석의 대표를 뽑는다.

직선직은 지난해 9월 사직한 명진스님(쌍계사), 지난해 11월 의원제명된 영담스님(쌍계사)의 자리를 채우는 보궐이다. 쌍계총림 쌍계사는 그동안 방장 고산스님을 중심으로 교구 내 합의를 통해 투표 없이 중앙종회의원을 선출해왔다. 이번에도 교구내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직능대표 보궐선거는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로 자리를 옮긴 영배스님(교육)과 조계총림 송광사 주지로 임명된 진화스님(강원)의 후임을 정한다. 1석이 공석인 비구니대표는 2014년 총선거 당시 후보 사퇴로 선출하지 못한 자리다. 직능대표와 비구니대표는 2월22일 열리는 직능대표선출위원회(위원장 자승스님)에서 결정된다. 후보등록은 2월1일부터 3일까지 중앙선관위 및 교구선관위를 통해 이뤄진다.

박봉영 기자 bypark@ibulgyo.com

"불교와 소통하는 좋은 글 써주길"

불교신문 신춘문예 시상식
권행백 조병태 한상록 씨

불교문인의 등용문이자 한국불교문학의 산실인 '2016 불교신문 신춘문예' 시상식이 지난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불교신문 발행인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2016 신춘문예' 당선자 권행백(단편소설), 조병태(동화), 한상록(시)씨에게 당선패와 상금을 각각 수여했다. 이에 따라 소설 당선자는 500만원, 동화와 시 당선자에게는 300만원씩의 상금이 전달됐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이 자리에서 "소설, 동화, 시 부문 시상자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격려하고 "앞으로 좋은 글을 통해 불교와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각 부문 심사위원을 비롯해 신춘문예를 준비한 불교신문, 총무원 문화부 관계자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내년 신춘문예는 상금을 인상하는 등 많은 문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불교신문 신춘문예는 지난 1964년 시작해 현재 30회를 맞고 있다. 불교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신인 문학인을 발굴하는 장에서도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상금규모도 다른 신춘문예와 비교해 최고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 11월9일부터 12월9일까지 한 달 동안 공모한 이번 신춘문예에는 시·시조 2000여 편을 비롯해 동화 100여 편, 단편소설 100여 편, 평론 10여 편 등 총 2200여 편이 응모됐다. 단편소설 부문은 권행백 씨의 '륜향(輪香)', 동화 부문은 조병태 씨의 '내 이름은 바보', 시·시조 부문은 한상록 씨의 '봄'이 선정됐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는 불교신문 사장 주경스님과 총무원 문화부장 혜일스님, 불교신문 임직원, 수상자 가족 등이 동참했다.

허정철 기자 hjc@ibulgyo.com

2016 불교신문 신춘문예 시상식이 지난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열렸다. 본지 발행인 자승스님(가운데)은 이날 수상자들에게는 좋은 글을 통해 불교와 소통하는 계기를 많이 마련해 줄 것을, 신문사에는 상금 인상 등을 통해 문인들이 신춘문예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재호 기자

"벽조목"이 무엇이기에 극소수분들만 알고 왜 미소짓는가?

벽조목 단주

벽조목 함

벽조목 구쇠

벽조목 도장

벽조목 서류함

벽조목 박

NAVER 신비원 을 검색하세요.

霹棗木벽조목(벼락벽, 아침조, 나무목) 벼락맞은 대추나무란 뜻입니다.

귀하고 귀한 벽조목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전래 내려온 과정을 보면 극소수분들만의 신묘함의 상징으로 여겨져오고 생활면에서 아주 큰 긍정적인 영향만을 끼치고 은밀하게 거래되어온 바로 그 벽조목….

액운을 막아주고 건강과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그 바로 진품중의 진품 벽조목 공예품들을 丙申年을 맞아 올해에는 국내외적으로 어렵고 힘든 해가 될 것 같다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 신비원이 공개적으로 소중한 국민들 힘내시고 용기 내시어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라는 소망에 대화의장, 경청의장을 앞으로 마련코자 합니다.

"지금처럼 난세에는 보다 큰 지혜로운 노력이 필수입니다"

★선착순으로 방문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숄더백을 선물해 드립니다★

신비원 02)484-7351 / 010-3766-3237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 94(천호동, 2층)